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김동영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많다...

는 취지라는 주장이다.

정부에 '지방'은 정말 없는 건가

은 당연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을 죽이는 정책인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수도권 지역이기주의의 확산'이라고 비난했을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오정규 기획담당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까지 폈다.

정부는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순박하다고 하늘을 가리려 해선 안 된다. 어지 논리로는 자신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국민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제 완화'라는 국정철학에 변함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해야

정 장관의 말처럼 지방의 자생력은 매우 취약하다. 지방 스스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순박하다고 하늘을 가리려 해선 안 된다. 어지 논리로는 자신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국민의 눈은 속일 수 없다.

〈논설실장〉dykim@kwangju.co.kr

시설

예산 확보 '청신호' 영산강 뱃길복원 힘받나

영산강 뱃길 복원을 핵심으로 하는 전남도의 '영산강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됐다.

거론되고 있는 영산강 프로젝트 전체 예산 6조2천460억원의 3% 정도다.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가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반영하기로 한 영산강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2천여억원에 달한다.

지역 국회의원도 지적했듯 환경과피해 논란과 한반도 대운하 살리기의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가장 큰 걸림목이다.

전남도는 뱃길 복원에 따라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주민과 정치권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기부천사' 문근영에 색깔론 '작태'라니

'기부천사'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배우 문근영씨에 대한 '악플'(악의적 댓글)이 난무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만원씨와 네티즌들이 문씨의 가족사까지 들먹이며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다.

문씨의 선행은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한다. 문씨는 2003년부터 6년간 익명으로 8억5천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쾌척했다.

지씨와 네티즌들은 작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들이 불우자를 위해 열마나 많은 기부금을 냈고 헌신해 왔는지 궁금하다.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네티즌들이 '악플'을 통해 문씨의 선행을 매도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다행인 것은 흑색선전이나 비방보다는 '선플'이 많다는 점이다. '칭찬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힘 내세요'라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은평칼럼

송민석



"힐 우유를 마시고 목욕 타월로 얼굴을 헹개 물질라 뵈요. 그렇게라도 하면 하얗게 되는 줄 알고..."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대한민국을 자신의 나라로 선택한 이들을 아끼고 꺼안아야 한다.

기고

김양식



인생을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이 나 장애를 만나게 된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와 같은 공동체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 또는 마음의 부담은 덜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라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하루 빨리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육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수 농장 노동자와 러시아와 연해주를 떠도는 고려인들도 이주 외국인들과 같은 처지였음을 잊지 말자.

남의 탓 나의 덕

이란 내가 지면 무겁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참 편한 단어이다. 사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습성은 우리 본성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서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있어온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질 때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된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입사 서류전형 때 주민등록등본 왜 필요한가

최근 구직을 위해 몇 군데 기업에 서류를 넣으면서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발견했다.

인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적절하고 안전하게 잘 관리하리라 믿는다.

숫자 표기, 실생활 사용하는 네자리수로 바꿔야

일상 생활에서 불편을 주는 관행이 있다. 숫자 표기하다.

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선 왜 굳이 어려운 천 단위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featuring the slogan '無等鼓'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Table containing Kwangju Ilbo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circulation information.